

□ 10개 숫자로 나눠보는 1분기 中 경제 성적표(2)

○ 외국인투자 40% 가까이 ↑

중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에 신설된 외국인 투자 기업은 1만263곳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7.8% 늘어난 수준이다. 해외직접투자(FDI·실제투자 기준) 규모도 39.9% 증가한 3천24억7천만 위안(51조7천768억원)을 기록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 매력도는 지난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매서운 기세로 확산됐을 때 더욱 높아졌다. 대(對)중 투자는 4% 증가해 중국은 최대 외자 유치국이 됐다. 향후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가 더욱 축소되고 양자 또는 다자 간 투자협정 체결이 추진되면 올해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개인 가처분소득 13.7% ↑

1분기 중국의 개인 가처분소득은 9천730위안(166만5천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 소득 출처별 증가율은 임금과 경영 순수익이 각각 12.4%, 19.5%에 달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개인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16.3%에 달해 눈에 띄게 늘었다. 이는 도시에 비해 12.2% 더 높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개인 가처분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부터 분기를 거듭할수록 줄곧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졌다.

○ 소매 판매액 33.9% ↑

1분기 중국의 소매 판매액은 10조5천221억 위안(1천801조1천731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3.9% 증가했다. 특히 3월 소매 판매액은 34.2% 늘어 3조5천484억 위안(607조4천15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소매 판매액도 29.9% 증가해 2조8천93억 위안(480조8천960억원)이라는 판매액을 달성했다.

이에 대해 장옌성(張燕生)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의 수석 연구원은 소비 환경이 개선된 데다 개인 가처분소득 증가 및 내수진작 정책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1분기 소비시장이 빠르게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앞서 숙박·요식업 등 오프라인 소비가 줄었던 업계도 점차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물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2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0.2% 하락했지만 3월엔 0.4% 올랐다.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3월 CPI가 플러스로 전환된 주요 원인이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업 분야의 산업 시스템이 완비돼 있고 생산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업품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작다고 덧붙였다. 식품가 역시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줄곧 내림세를 보여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때문에 CPI의 상승 압박이 크지 않아 올 한 해 가격대가 안정 구간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부동산 판매액 88.5% ↑

중국의 1분기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5.6% 늘었다. 전체 부동산 판매액은 3조8천378억 위안(656조9천546억원)을 기록해 88.5% 증가했다. 최근 일부 도시에서 부동산 열기가 뜨거워지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조치도 취했다. 관련 부처는 광저우(廣州)·허페이(合肥)·닝보(寧波)·둥관(東莞)·난통(南通) 등 5개 도시 책임자를 초치해 부동산을 경기 단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말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新华社, 2021.4.19.)